

소리의 맥을 잇다... '심청가'로 피어나는 전통의 울림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전수자 연창 발표회, 23일 전통문화관 서석당

예능보유자 문명자 명인과 전수자한 무대, 남도 정한 풀어나 국악인 김산옥 사회·해설... 판소리 고법 보유자 박시양 장단

남도 가야금병창의 전통을 잇는 전수자들의 무대가 마련된다.

세대를 넘어 이어온 소리의 맥을 현재의 무대에서 확고히 하고, 전승의 흐름이 살아 있는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문화재 맥을 잇다-여덟 번째 심청가편 전수자 가야금병창 연창 발표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발표회는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문명자 선생의 지도로 성장한 17명의 전수자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익혀온 소리와 가락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 사회와 해설은 국악인 김산옥(제1대 조선판스타 우승자, 창작국악그룹 다온소리 대표)이 맡으며, 장단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인 박시양 교수가

함께한다.

문명자 예능보유자는 2005년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남도 병창의 예술성과 정신을 전승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2013년에는 제자들에게 단독 무대를 제공하는 '가야금병창 홀로서기 발표회'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15회에 걸쳐 매주 진행하며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 경험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그 결실로, 전수자들은 '심청가'의 주요 대목을 통해 효(孝)와 인애(仁愛)의 정신을 노래하고 남도 특유의 정한과 소리의 맛을 펼친다.

공연 프로그램은 사계절의 풍경과 인생무상을 노래하며 소리의 길을 여는 단가 '사절가'로 시작된다.

이어 심청가 ▲화초타령 ▲추월만정-이렇다



시 ▲올라간다 ▲그자리에 엎드려 ▲방아타령 ▲여전사랑-천지신령 ▲예 소꿉이-열씨구나, 민요 봄·여름·가을·겨울 등 다양한 대목으로 구성된다.

출연진은 이수자인 송은영·김다은·송은지·강세희·서다희를 비롯해 장혜윤·정보라·이아름·심세희·박한솔·모혜윤·김운아·김가연·정흥희·윤하나·전현정·김초희·최수지·김은주·노효진·박은정·최혜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문명자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대표는 "요즘 대중음악 속에서도 우리 소리의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 국악의 혼이 스며 있다. 케이팝을 비롯한 세계 음악을 즐기기에 이전에 우리 소리의 혼을 이해하는 것이 곧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가야금병창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전통의 품 안에서 가야금과 창이 한데 어우러진, 국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가야금병창의 매력에 취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감각의 지층으로 펼쳐낸 순례의 여정

오수경 개인전, 30일까지 영암 아천미술관

'오늘날의 순례는 어디에 있는가.'

영암 아천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오수경 작가 개인전 '지오 필그림-감각적 지도(Sensory Map)'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고 오수운 화백의 딸이자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온 오수경 작가를 초청해 마련된 기획초대전으로, 한 예술가의 정신과 그로부터 이어진 또 한 세대의 창조적 사유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자리다.

'나의 샘, 나의 근원(我泉)'을 뜻하는 아천미술관은 오수운 화백의 주요 작품을 소장하며 한국 근·현대 서양화의 맥을 잇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정체성과 작가의 예술적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작가의 신작 연작 '지오 필그림-감각적 지도'는 자연 속 '순례자'(Pilgrim)로서 경험한 풍경과 감각의 증위를 회화로 풀어낸다. 작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자취처럼 색과 형태를 반복적으로 겹쳐 올리며 화면 위에 '감각

의 지층'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은 풍경의 재현을 넘어 인간과 자연, 시간과 존재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오수경 작가는 "수백만 년의 압력을 견뎌온 암석의 결처럼, 나 또한 그 시간과 감각을 회화의 층으로 압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순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체와 감각을 통해 세계와 직접 맞닿는 과정이다. "박물관의 정교한 VR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직접 몸을 움직여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회화는 체험과 몰입의 미학을 품는다.

작품은 중국 둔황의 막고굴, 천산 산맥의 바위, 사막의 빛 등 원형적 자연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작가는 그 경험을 '압축된 감각'으로 전환해 인간의 몰입과 자연의 시간, 깨달음의 흔적을



'필그림-실악 2024'

한 화면에 응축했다. 암석의 결과 대지의 흔적은 순례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깨달음의 흔적이자 시간의 패턴으로 남는다.

오 작가는 "디지털 기술로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세계의 감각, 그리고 인간이 세계와 맺는 근원적 관계를 탐구하며 그 여정을 '감각적 지도'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동화로 만나는 무등의 상상

의재미술관, 30일까지 어린이 전시·체험 '우리, 하늘만큼 땅만큼' 진행

'나와 세상의 깊은 연결을 발견하다.'

의재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우리, 하늘만큼 땅만큼'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하늘(天)의 무한한 가능성과 땅(地)의 안정 속에서 인간(人)으로서의 역할과 조화를 탐구하는 자리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나'와 세상의 깊은 연결을 발견하도록 기획됐다.

1전시실은 '나와 세상을 잇는 동화'를 주제로 꾸며졌다. 의재미술관 직한 허탈재 이사장의 동화책 '나는 누구일까?'를 비롯해 9권의 동화책을 오브제로 전시 중이다. 어린이들은 동화 속 인물과 상황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만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

2전시실은 '세계시민 이야기와 체험'을 주제로 한다. 옷는땅공어린이재단의 다국어 교재를 활용한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멸종위기 동물과 자연의 신비를 다룬 어린이 작가 동화책도 함께 전시돼 책 읽기와 토론, 쓰기·그리기·스



4전시실 '숲속 책 놀이터와 영상' 전경

타기 붙이기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

4전시실은 '숲속 책 놀이터와 영상' 공간으로 조성됐다. 숲속 도서 광장에서 동화를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플레이 모빌, 하늘광장, 미니운동장, 책 읽기 존 등에서 자연을 느끼며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이번 전시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의재 허백련 선생님의 예술과 정신이 미래 세대에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1차 15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2차 6가구>
입주완료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CMYK